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내게로 올 자들 II

(요 6:36-37)

이종윤 원로목사

3.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엡 1:4)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택하시되 토기장이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릇을 굽듯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생명을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온전히 지키시고 보전하시다가 구원을 하십니다. 과거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정해진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37절). ‘아버지가 주시는 자’는 현재형이요, ‘올 것이요’는 미래형입니다. 39절의 ‘내게 주신 자’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보전하십니다. 영원한 과거의 하나님의 선택이 효과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으로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 모든 것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없이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구원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중에 몇을 택하여 그리스도에게 주었다고 했으니 그 중에 내가 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은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진리의 말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 아무리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 같은데 이 진리를 들으면 즉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웬일입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정론, 곧 성경이 가르치는 예정은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우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전도지를 보고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일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 저런 일하는 것도 다 귀하지만 영원히 남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주신 생명을 구원하는 일, 곧 전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마다 선교회, 전도회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 생명의 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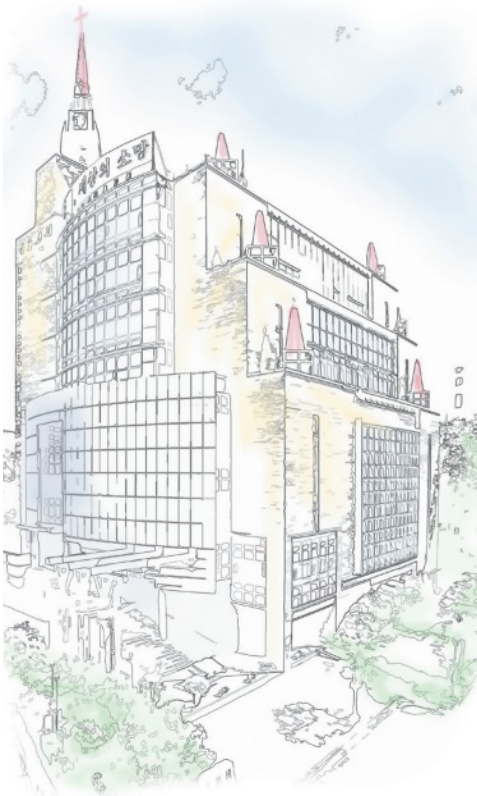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37절)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생명을 붙잡으셨다가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영생을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실 때에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우리 보고 그 값을 치루려면 치를 사람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그 값을 치를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피로 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6:37)

돈이 없다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혹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해도 결코 내쫓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쉽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내쫓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벌써 십자가의 피로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뭘 할까요?”라고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말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할 일이 있다면 믿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분노의 손에서 지옥으로 던지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주심으로 아들이 나를 건져 주셨다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주신 생명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는 믿음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월 29일(월)-4월 3일(토)까지

새벽 5시, 본당 2층

다음 주일(3월 28일)은 종려주일이며 다음 주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이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3월 29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 새벽 5시에 본당 2층에서 진행된다.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聖) 금요일'(4월 2일)은 해 있을 동안 금식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바라며 오후 8시, '성(聖) 금요일 저녁기도회(온라인 예배)'가 있을 예정이며 김의창 목사가 설교를 담당한다.

부활절인 4월 4일(주일) 새벽 5시 '부활절

새벽기도회(온라인 예배)'가 있으며 전재홍 목사가 설교를 담당한다.

특별새벽기도회 설교 담당은 다음과 같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3. 29(월) : 서명철 목사
- 3. 30(화) : 서명철 목사
- 3. 31(수) : 장석남 목사
- 4. 1(목) : 장석남 목사
- 4. 2(금) : 조원영 목사
- 4. 3(토) : 조원영 목사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재정 보고 시행하다

교회 재정의 투명성

교회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인들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초 공동의회를 통과한 교회 연간 예산 및 당회 결의를 거친 한 달간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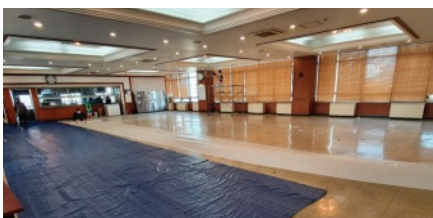
재정 용어에 익숙치 않은 교인들도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으로서 서울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열람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교회 메인 페이지 좌측 상단 '재정보고' 메뉴를 선택 후 열람이 가능하다.



계속되는 교회 건축물 보수



교회 건축물 보수 공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지난 주는 8층 만나홀의 페인트 공사를 진행하였다. 남은 공사도 무사히 진행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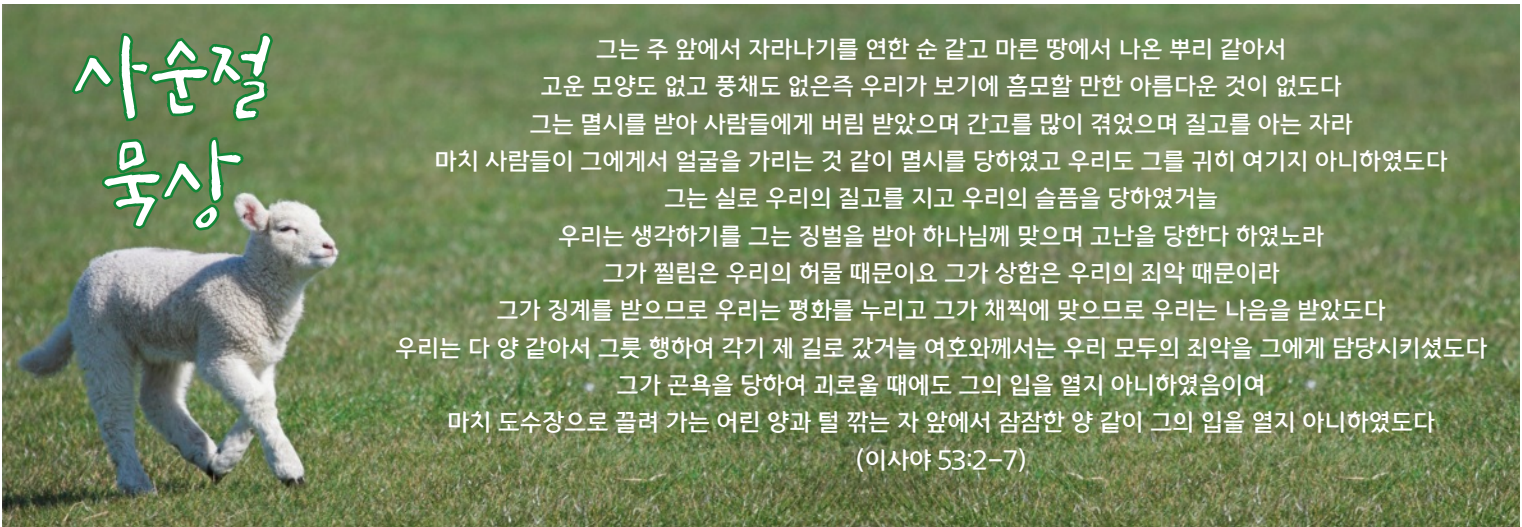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제목

1. 모든 송사 건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념으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목사를 하나님이 찾아 보내주옵소서
3.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게 하사 온 성도각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진행되어 거룩하고 화평한 서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4.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충만과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5. 청빙 받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던 사역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부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2-7)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레아에게

신입생이 된 무건아^^

이수경 집사 (12교구)

이정현 집사(12교구)

레아야~ 오랜만에 아빠, 엄마가 레아에게 편지를 써 보네^^
 교회 영아부실에서 레아와 함께 예배드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유년부 어린이가 되었다니...
 새삼 시간의 빠름을 실감하게 된다.



무엇이든 언니만큼 하고 싶어 하는 아무진 우리 레아의 모습을 보면 학교생활도 누구보다 잘 해낼 것이라 믿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보낼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즐겁고 기쁜 일, 또 때로는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바르게 성장해가는 레아가 되길

아빠, 엄마는 바라고 기도할게.
 너의 새로운 출발을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축복해!
 예쁜 레아를 보내 주심에 감사하며...

아빠, 엄마가



무건아.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일인데 혹시 기억할까?^^ 엄마 뱃속이 좁았는지 세상이 궁금했는지 8개월쯤 되었을 때 나오려고 해 엄마는 입퇴원을 반복하며 하나님께 그저 건강하게만 세상에 나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단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엄마의 태에서 무사히 열 달을 채우고 건강하게 나왔지! 그 일들이 엇그제 같은데 우리 막내가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다니 그 시간 동안 너를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구나.

코로나로 인해 유치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너를 위해 입학 전 무엇을 해 주면 좋을까? 생각하다 한글도 익힐 겸 말씀 쓰기를 시작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글자 한 글자 쓰면서 손이 아프다 힘들다 투정 부렸지만 그래도 주어진 것들을 다 해내는 무건이가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단다. 엄마는 세 번째 맞이하는 입학이라 덤덤할 줄 알았는데 막상 입학식 날 의젓한 무건이를 보니 기특하기도 하면서 너무 빨리 커버린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들더구나. 하지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가

는 무건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감사하며 걱정과 아쉬움은 내려놓으려 해. 무건이도 너 무 잘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항상 무건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지금처럼 성실하고 진실하게 지낸다면 분명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거야. 잠들기 전 네가 늘 하는 "하나님 아버지 백 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세요"라는 기도처럼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너의 삶에 큰 축복이 찾아오리라 믿는다. 무건이를 위해 엄마 아빠가 기도로 후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 파이팅 하자.

너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한다 최무건!!

“
 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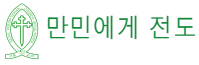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

(베드로후서 3:18)



주님의 공활하심이 이곳에 임하길...



새 생명 얻은 형제와 1월 생일 맞은 성도들 축하 케이크 커팅

온 세상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두움 속에 헤메이는 듯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먼 곳 서머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길 소원하며 문안드립니다.

확진자가 줄어드는 듯하더니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 주말 외출금지 당분간 계속될 듯합니다. 세상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해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요 며칠 사이에 지진이 계속 있어서 흔들리는 안타까운 일과 갑자기 퍼붓는 비로 인해(한 달 분량의 비가 8시간 동안 내려서) 홍수가 나 대로에서 차들이 떠내려가고 집들이 물에 잠기고 잠깐 집에서 모두 나오라는 경고가 있는가 하면 전철도 운행이 정지되는 등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네요. 주님의 공활하심이 이곳에 임하길 간구합니다.

저희는 주말 외출금지로 인해 주일을 지키지 못하기에 금요일에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께

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압니다. 이곳은 마음껏 전파하지 못하지만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로 통신 사역이 있어서 연결하여 관심자들과 교제하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관심자인 한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과 구주는 오직 예수이신 것을 고백하는 감격의 시간을 1월 22일 예배시간에 가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희는 아침마다 새롭게 해 주시길 위해 예배하며 주를 의지하며 매일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연합함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너무 힘에 겨운 것들이 짓누르기에 감당할 수 없겠지만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므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올해도 영육이 강건하여 주님이 맡기신 가장 귀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간구가 우리를 이곳에서 넉넉히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서울교회가 세상의 등대로 오롯이 서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합당한 담임목사가 초빙되고 몇 년 동안 멈춰있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형제가 잘 자라고 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를 속히 주시도록.
2. 저희 교회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해지도록.
3. 택한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시도록.
4. 저희의 영과 육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서머나의 한 모퉁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빛진 자 된
그레이스&아이든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3.25(목) 한국 군선교연합회 71차 정기이사회에 참여한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22일	월	삿 13-16		욘 35-42	
3월23일	화	삿 17-19		시 1-11	
3월24일	수	삿 20-21		시 12-21	
3월25일	목	룻 1-4		시 22-33	
3월26일	금	삼상 1-3		시 34-40	
3월27일	토	삼상 4-8		시 41-50	
3월28일	주일	삼상 9-12		시 51-65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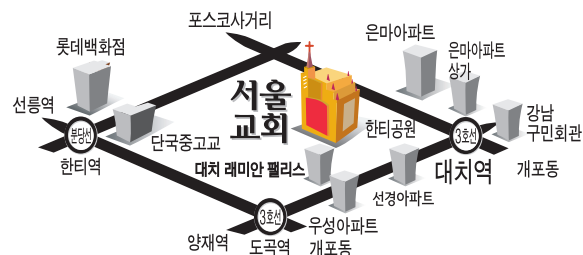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의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할 담임목사를 찾아 보내주시어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게 하옵소서.
2.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3.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져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